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규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정 지 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

김정규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정지연

# 인 준 서

정지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5월

심사위원장..... (인)

심 사 위 원.....(인)

심 사 위 원.....(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분노표현방식의 관계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학생 367명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 분노표현방식,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개방형, 폐쇄형), 분노표현방식(분노조절, 분노표출, 분노억제),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분노조절과 정적상관이,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내면화된 수치심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은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노조절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분노조절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분노표현방식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분노조절과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결과는 분노조절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상관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효과를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부분매개효과를, 분노억제와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은 분노억제와의 관계에서만 내면화된 수치심이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개방형, 폐쇄형 모두 분노표출, 분노억제와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모두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부모-자녀 의사소통, 분노표현 방식, 내면화된 수치심

#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7
1) 연구문제	7
2) 연구모형	8
II. 이론적 배경	9
1. 부모-자녀 의사소통	9
2. 분노표현방식	11
3. 내면화된 수치심	13
4.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분노표현방식,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16
III. 연구방법	21
1. 연구대상	21
2. 조사방법	21
3. 측정도구	22
1)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22
2) 분노표현방식 척도	23
3)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24
4. 자료 분석	26
IV. 연구결과	27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27

2.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	28
3.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	29
4.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분노표현방식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	31
1) 연구모형 검증 .....	31
2) 매개효과 검증 .....	48
V. 논의 .....	50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의의 .....	50
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	53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1> 인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21
<표 2>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신뢰도 .....	22
<표 3> 분노표현방식 척도 신뢰도 .....	23
<표 4>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신뢰도 .....	25
<표 5> 인구학적 통계 .....	28
<표 6>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	29
<표 7> 변인들의 상관관계 .....	30
<표 8>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분노조절,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	32
<표 9>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분노표출,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	33
<표 10>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분노억제,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	35
<표 11>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분노조절,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	36
<표 12>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분노표출,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	37
<표 13>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분노억제,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	39
<표 14>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분노조절,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	40
<표 15>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분노표출,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	41
<표 16>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분노억제,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	43
<표 17>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분노조절,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	44
<표 18>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분노표출,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	45
<표 19>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분노억제,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	47
<표 20> 매개효과 검증결과 .....	49

## 그림 목 차

<그림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분노표현방식,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 .....	8
<그림 2>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분노조절,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 .....	32
<그림 3>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분노표출,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 .....	34
<그림 4>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분노억제,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 .....	35
<그림 5>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분노조절,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 .....	36
<그림 6>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분노표출,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 .....	38
<그림 7>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분노억제,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 .....	39
<그림 8>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분노조절,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 .....	40
<그림 9>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분노표출,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 .....	42
<그림 10>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분노억제,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 .....	43
<그림 11>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분노조절,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 .....	44
<그림 12>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분노표출,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 .....	46
<그림 13>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분노억제,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 .....	47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발달단계 중에서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과도기이며, 가치관의 변화도 매우 큰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기보다 감정적 기복과 불안정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이선주, 2010). 그래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기도 하며, 흥분, 분노, 슬픔, 우울 등의 민감한 정서 반응을 나타내거나 반항적이고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김현영, 2004).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정서 조절은 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서의 내용 중에서 분노는 가장 빈번하게 경험되는 정서의 하나이며(Ellenson, 1983), 생후 2개월 된 영아도 분노를 표현할 만큼 생애 초기부터 경험되고 표현되는 가장 기초적인 정서이다(Lewis, Alessandrini & Sullivan, 1990). 분노는 어떤 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하거나 그 상황에서 자신의 체면이 손상될 것이라고 여겨질 때 나타내는 반응이며(Novaco, 1994), 공격을 위해서 생리적으로 각성되고 준비된 상태이기도 하며(Buss & Perry, 1992), 생리적 흥분 상태를 수반하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이다(서수균, 권석만, 2002). 분노를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사회적으로 결속을 다져주고 개인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며 개인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보호해 주고(Bilodeau, 1992) 갈등을 외현화하여 높아진 불안감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표현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Novaco, 1976). 그러나 분노는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충분히 학습하지 않는 경우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하며(오지현, 2010), 정

신병리 또는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신체적 질병을 유발하게 한다(Spielberger, Krasner, & Solomonm 1988; Siegman, 1994; Anderson & Lawler, 1995).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 자살, 약물사용 및 성문제, 폭행, 살인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문제행동들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김미희, 2011), 이러한 문제들의 기저에는 통제 및 조절되지 못한 분노표현방식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서지영, 최정윤, 2000). 이처럼 청소년 분노가 조절되지 못하고 실패하였을 때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도 많은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분노표현은 청소년기의 주요한 심리 정서적 발달과제라 할 수 있다. 적절한 분노표현은 청소년 개인의 정신을 건강하게 발달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한 부적응 문제를 감소시키거나 해소하여 나아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준다(장혜림, 2014).

청소년 분노의 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대인관계에서 비롯되고,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이규미, 1999) 사회관계적 맥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서·사회성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미시 체계 맥락으로 우선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오지현, 2010).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성장하고, 개인이 맺는 관계의 경험이 확장됨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도 성장하게 된다. 이처럼 한 개인을 나타내는 여러 대인관계 중에서, 다른 어떠한 관계보다 개인의 삶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주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다.

부모-자녀 관계는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기본이며, 인간의 사고, 행동, 정서가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이다(신자은, 2002). 따라서 부모와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분노를 어떻게 느끼고 표현하

는지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각본을 형성하게 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청소년 자녀가 분노조절을 잘하고,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적게 사용하였으며(윤수미, 2005), 부모 양육태도가 거부적이고 통제적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라고 부모 양육태도를 지각하는 청소년들보다 분노표출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설하, 2005). 또 부모로부터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자녀일수록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억압하거나 과도하게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주연, 2010; 황연덕, 이진숙, 2010). 이와 같이 부모는 청소년의 분노표현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부모 양육태도와 분노표현 방식과의 관계로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분노표현 방식에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부모 요인 중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분노표현방식 간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Schaffer(1977)는 부모의 언어 환경을 강조하면서 부모가 자녀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언어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홍혜란(2010)은 가정의 언어모형이 취약할수록 자녀의 지적발달의 결손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성취와 기초능력을 촉진하기도 하고, 저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김승원(2000)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상호 간 기능적 의사소통을 했을 때 청소년기 자녀가 사회화를 겪으면서 자아를 확립하고 원만한 적응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했으며, 박금남(2001)은 과도기적 시기인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심리적·정서적으로 많은 불안이나 긴장, 갈등 등을 경험하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이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했다. 따라서 부모의 의사소통 방식은 자녀의 인성이나 성격이 성장과정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태완, 2013).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자극이 아동의 발달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연구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따라 변인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려고 한다(신윤성, 2012).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살생각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자살생각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고(김경미, 2011), 아버지와 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녀는 높은 사회적응을 보이며, 어머니와 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녀는 높은 수준의 학업적응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조민희, 2007). 장해순과 강태완(2005)의 연구에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청소년들은 자신감과 과제난이도 선호에서 어머니보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아영과 차정은(2010)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자율성 지지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류승민(201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각한 자녀일수록 친구 간 갈등상황에서 지배전략을 사용하며 배려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따라 변인들 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분노표현방식에서도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대상관계이론에 따르면 유아는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점차 부모의 상을 내면화 시켜서 내적 대상을 갖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을 형성해 간다. 따라서 자녀는 자신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에 따라 자기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표상할 수 있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부정적으로 표상한 자녀는 수치심에 취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와 의사소통의 무안당하거나 창피한 느낌을 지각하게 될 때 마음 깊숙한 곳에 내면화되었던 정서가 올라와 스스로를 비판하거나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데 이러한 정서가 바로 ‘수치심(Shame)’이다(김태완, 2013).

수치심은 자기에 대한 정서적 표상의 한 부분으로 ‘총체적인 자기를 검토한 결과, 부족하고 결핍되었으며, 부적절하고 무기력하며 작다고 느껴지는 자아의 식으로부터 생겨나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한 형태’이다(Kaufman, 1989). 이러한 수치심이 내면화되면 자신이 저지른 일 자체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해 환멸을 느끼며 자신을 인간으로써 부적당하고 결함이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 Boszormeny-Nagy 등(1973)은 부모가 자녀에게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기대를 하게 되면 그러한 상황을 내면화시킨 자녀는 자신의 온전한 욕구나 의도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고, Loader(1998)은 부모의 과잉기대는 자녀가 항상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실패에 대해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 수치심을 갖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Cook(1991)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과 관심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통제와 보호수준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수치심이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부적절하고 무가치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무가치하고 바보 같은 모습을 타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숨거나 사리지고 싶어 하고, 자신의 생각, 기대, 느낌을 표현할 때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Bradshaw, 1988). 또한 타인도 자신을 부적절하고 무가치하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쉽게 모욕감과 분노를 느끼고, 방어적으로 타인에게 잘못을 투사하여 타인을 비난하기도 한다(Lewis, 1971). Tangney 등(1996)의 연구에서는 수치심이 높을수록 분노감정을 더 많이 경험할 뿐 아니라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분노감정에 반응한다고 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수치심과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와 같은 부적응적인 분노표현 방식 간에 정적 상관을 나타낸 결과들을 볼 수 있다(김현주, 2009; 장진아, 2006 등). 그러므로 수치심은 다른 정서보다 분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관련성이 있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의 삶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분노표현 방식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위해 그 원인이 되는 변인들과 청소년의 분노표현 방식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양육태도와 애착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분노와 관련지어 연구가 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양육태도의 언어적인 측면인 의사소통이 청소년과의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면서 심리적인 치료적 개입과 청소년의 적응적인 분노표현 방식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매개로 분노표현방식(분노조절, 분노표출, 분노억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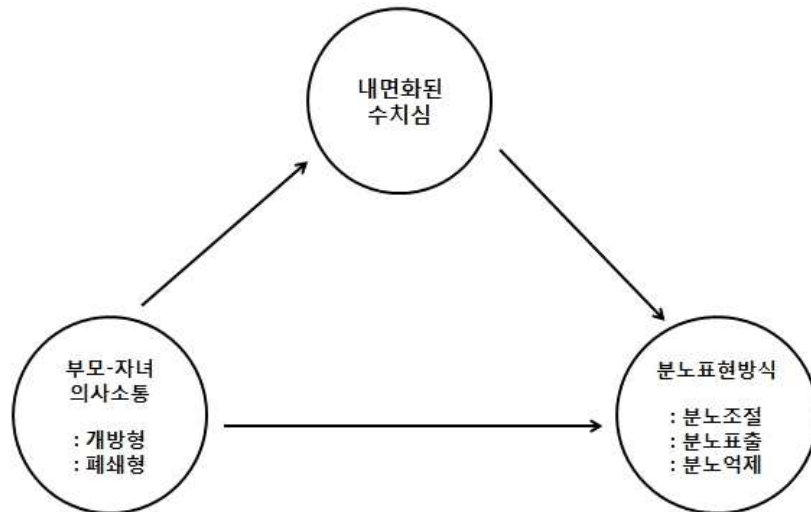
가설 2-2. 청소년이 지각한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분노표현방식(분노조절, 분노표출, 분노억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3. 청소년이 지각한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분노표현방식(분노조절, 분노표출, 분노억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4. 청소년이 지각한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분노표현방식(분노조절, 분노표출, 분노억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지각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분노표현방식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그림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분노표현방식,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자녀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자기의 느낌과 의미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사람들 간에 믿음, 생각 뿐 아니라 감정과 태도까지 전달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모든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이영경, 2008). 그 중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기본인 부모-자녀 관계에서 의사소통은 자녀의 역할조망과 자아정체감 형성, 도덕성 발달, 가족으로부터의 심리적 이유 등 인성이나 행동발달 및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문영숙, 2008), 도덕성 발달 등과 같은 사회적응에 기초가 되는 사회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선명숙, 2011; Barnes & Olson, 1982). 또 자녀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부모에게 표현하고, 자신의 의사를 왜곡됨이 없이 전달함으로써 내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게 되며, 나아가 긍정적인 관계 확립으로 자신감 및 안정감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Barnes와 Olson(1982)은 기능적인 가족에서는 가족원들이 분명한 의사소통망을 성립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며 상호 의사소통을 통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다고 했다. 반면에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들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며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행동할 수 있는 기술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가족 내의 의사소통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초점을 맞추어 보면 상호작용의 방식에 따라 ‘개방형 의사소통’과 ‘폐쇄형 의사소통’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개방형 의사소통(open communication)’이란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감정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명확하고 모순되지 않은 메시지, 공감, 반영적 경청, 지지적인 발언 및 효과적인 문제 해결 등을 의미한다.

‘폐쇄형 의사소통(problematic communication)’은 청소년기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의사교환 및 주제선택에 조심하고 주저, 회피하며 부모로부터 애정적 표현보다는 비난적 표현을 더 많이 경험하여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유형이다. 일치되지 않고 모순된 메시지를 전달하며, 부정적인 발언이나 비판, 이중구속 및 빈약한 문제해결 기술 등을 사용한다(고아라, 2007).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고, 부모의 의존과 동일시로부터 벗어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득하게 되면서 관심과 취미 등이 맞는 또래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에 대한 의존성은 점점 감소하게 된다. 이 때 세대 차이와 부모의 권위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부모도 자녀에게 먼저 대화를 건네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고 청소년기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자신감을 잃고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노윤옥, 전민경, 2006). 환경적인 요인으로 살펴보면, 마스크의 발달, 핵가족화 형태로의 가족의 구조적 변화, 어머니의 사회진출,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등으로 인하여 더욱 더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의 기회와 관심이 감소하게 된다(이요나, 2007). 또 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권위적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수직적인 대화를 하며 관심 주제도 일치하지 않고, 자녀들이 부모가 상담능력이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점점 더 부모와 의사소통이 어렵게 된다고 하였다(김양희, 2000: 166). 이런 변화로 청소년시기에는 많은 부적응적인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부모들은 개방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청소년

년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정체감을 확립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청소년들의 고민이나 갈등이 해결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장휘숙, 2008).

## 2. 분노표현방식

분노는 짜증, 좌절감, 격분 등을 경험하는 의사소통 양식으로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정서 반응의 하나이다(Lazarus, 1991).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기능인 분노는 위협에 대처하도록 해주며(Lazarus, Kranner & Folkman, 1980), 한 개인의 기본적 욕구가 위협받을 때 이를 피하고(이철호, 2010),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힘의 원천이 된다(전검구, 2011).

생리적, 정의적, 인지적, 운동적 및 언어적 요소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내적 상태인 분노는 신체적으로는 혈압상승과 심장박동증가를, 정의적으로는 미미한 짜증에서 극단의 격노까지를, 인지적으로는 분노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Sharkin, 1988). 이렇듯 분노는 저장과 방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는 수준이 같더라도 개인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하다(김귀량, 2005).

Spielberger, Richeiser & Sydman(1995)은 다양한 분노표현방식을 적응적인 것과 부적응적인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먼저 분노조절(anger-control)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노감정을 조절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흥분하지 않고 언어적으로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든지, 자신의 의견과 상태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차분하고 진지하게 상대방을 대하려고 노력하는 등 타인에게 인내심을 보이거나 냉정함을 유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이라 할 수 있다. 부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으로는 분노표출(anger-out)과 분노억제(anger-in)가 해당된다. 분노표출은 화

가 나면 자신의 분노를 주위 환경에 드러내는 방식으로써 분노의 대상이나 타인에게 신체적인 행위를 가하거나 비난, 욕설, 언어적 폭력 등의 행동으로 분노를 외현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말한다(Spielberger et al., 1995). 언어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감정이 실린 말을 한다든지, 물건을 던지거나 문을 팡 닫는 등의 화난 행동을 이에 속한다(Deffenbacher & Hazaleus, 1985). 분노억제는 분노를 경험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분노의 대상을 회피하여 자기 내부로 돌리거나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과 관련된 생각이나 감정을 억제하거나 부정하고, 상대방을 향한 내적 비난을 하는 것이다(Spielberger et al., 1995). 화를 내지 않고 투덜거린다든지, 화를 꼭 참고 일부러 괜찮다는 식으로 말한다든지, 속으로 욕하지만 혼자서 열을 삭힌다든지 하는 것과 행동적으로 화난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 딴 일을 하는 것 등이 예가 될 수 있다(서수균, 2004 재인용).

만약 적응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할 경우, 사회적으로 결속을 다져주고 개인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며 개인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보호해 준다. 또한 갈등을 외현화하여 높아진 불안감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표현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Novaco, 1976). 그러나 개인이 경험한 분노를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조절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DiGiuseppe, 1999), 개인적인 수치심,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해결되지 못한 분노의 반추로 인한 고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전현숙, 손정락, 2011), 부적응적인 내적 조절로 이어져 정신병리 또는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신체적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Spielberger, Krasner, & Solomon, 1988; Siegman, 1994; Anderson & Lawler, 1995).

청소년기는 감정적 기복과 불안정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적절한 분노표현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노에 적절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인내하고 억제

할 것을 강요받는 문화권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기의 분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적절한 표현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환경에 비효율적으로 대처한다고 지각하며, 이들에게 있어서 분노는 좌절, 우울, 의존성과 강한 연관성이 있으며(Feindler와 Marriott, Iwata, 1984), 결국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인 폭력 행동 및 범죄, 정신·신체장애, 충동조절장애, 약물남용 및 자살 충동 등의 행동상의 문제들을, 불안, 우울, 신경증 같은 과도한 분노 억압으로 생기는 심리적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Spielberger & Richeiser, 2009). 그러므로 청소년의 분노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 3. 내면화된 수치심

수치심이란 총체적인 자기를 검토했을 때 부족하고 결핍되었으며, 부적절하고,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작다고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Kaufman, 1989; Lewis, 1971). 수치심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self)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전반적인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다(Tangney, 2002).

수치심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보면, 정신분석적 관점에서의 Freud는 죄책감이 초자아에 대한 원초아와 자아의 갈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정신 병리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수치심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연구에 대해서는 중요시 여기지 않았지만(Mills, 2004), 그 후 수치심을 노출증이나 관음증과 관련된 성적 충동에 대한 반응으로 보며 수치심이 중요한 병리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Freud, 1953).

Erickson(1963, 1968)은 배변훈련을 통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자율성을

경험하지 못하면 수치심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자아정체감 위기를 극복해야하는 청소년기에 역할혼미와 의사결정에서의 계속되는 실패는 수치심, 자존심의 결여, 소외, 자율성 상실 등을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하게 한다고 했다.

Piers & Singer(1953)는 수치심은 자아 이상(ego ideal)과 자아(ego)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으로, 자아 이상의 기대에 도달하는 것에 실패했을 때 나타난다고 했다. 따라서 자신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핍상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지 않을까하는 무의식적인 ‘버려짐’ 위협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수치심이 야기되며, 이에 대한 방어로 스스로를 처벌하거나 고통받도록 하여 보상케 하려는 행동이 뒤따른다고 하였다.

Lewis(1971)은 수치심은 자기비난의 초점이 전체자기에 맞춰져 있다고 하였다. 즉, 전체자기를 문제시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광범위하게 평가절하하고 스스로에 대해 무기력하고 어리석다고 여기며 스스로가 타인에게 노출되었다고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관찰하는 자기와 관찰당하는 자기로 분열(splitting)되어 자기통합성이 저하된다(성나래, 2009). 또한 수치심이 높은 개인은 실제적인 대중의 유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시선 앞에 노출되었다고 느끼게 되는데, 자기 전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보 같고, 유치하고, 어리석고, 우스꽝스럽게 느낀다. 이에 따라 회피하고 위축되며, 내적으로 도망가거나 숨고 싶어 한다고 한다. 이러한 수치심이 방어기제로 작용하여 모욕감과 노여움, 분노감 등이 표출되거나 타인에게 잘못을 투사하고 비난하거나, 수치심을 보상하기 위해 오만함, 거만함, 뻔뻔스러움으로 외재화하기도 한다.

Nathanson(1992)은 타인과 정서적으로 연결된 대인관계에서 원초적 수치심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수치심은 자기의 능력에 대한 평가, 내 힘으로는 안된다는 독립-의존의 문제, 남에게 뒤진다는 느낌, 뭔가 모자란다는 자가지각, 신체적 매력 부족, 성적 결함, 타인에게 노출되어 다 드러나 보이기 전에 도망가려는 충동, 관계가 가까워질 때 친밀해지고자 하는 욕

구와 함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지면서 친밀감에 대한 공포를 수반하는 경험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수치심의 방어기제로 철회, 자기 공격, 회피, 타인공격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Lewis(1992)는 한 개인이 자신 스스로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거나 실패의 결과로써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수치심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 의하여 수치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해석에 따라 수치심이 발현한다는 것이다(조효진, 2009).

이처럼 수치심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생기며 인간의 자기(self) 형성에 영향을 주는 감정이며(박지현, 2007), 자신의 입장과 의미 있는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손실감으로서 자기 이상의 기대에 도달하는 것에 실패함(Kaufman, 1989; Piers et al., 1953), 부정적인 자기 모습의 노출(Lindsay-Hartz, 1984)과 같은 현재의 자신이 기대되었던 자기가 아니라는 확신에서 발생한다(Bedford & Hwang, 2003).

특히,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인지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아동기보다 자기평가에 집중하게 되고, 급속한 발달 경험, 또래 평가의 증가, 성역할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발달적으로 수치심을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된다(Diclemente et al., 1996; Reimer, 1996). 이렇게 해서 생긴 수치심은 개인에게 부과된 역할의 사회화 과정과 역할 기대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 내면화되어 부적응적 인지적·행동적 양식과의 관계,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심리적 문제들과의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청소년의 발달단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4.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분노표현방식, 내면화된 수치심 간 관계

##### 1) 부모자녀의사소통과 분노표현방식

인간은 분노를 느끼면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현하게 되는데, 그 방식은 적극적이거나 공격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소극적인 방법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분노표현방식은 부모를 포함한 타인의 분노표현방식을 학습하는 등의 사회적 학습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습관체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부모는 중요한 대상이다(박성아, 2010). 그 중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매개체로 자녀의 인성이나 또래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현, 2009; 백윤미, 2006; 박현향, 2004).

분노표현방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아보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김은정, 2001; 정윤성, 2003). 청소년의 만성적인 분노 및 폭력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대적인 태도, 과잉보호, 무관심, 비인관적 부모양육태도를 가진 가정에서 주로 발견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민규영, 송현주, 2010), 청소년의 분노 경험과 표현 행위는 부모가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였고 부모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에 달려있다고 보고하였다(오윤선, 2012). 또 부모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청소년 자녀는 분노조절을 잘하고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적게 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일 때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므로, 자녀는 안정감을 느끼고 분노에 대한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여 표현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가 전체적이거나 거부적일 때 분노를 억압하거나 표출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분노표현방식에 관한 연구들과 달리, 부모의 양육태도의 언어적 표현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녀의 분노표현방식에 관한 연

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신자은, 2002). 김미영(2012)의 연구에서 의사소통 유형이 개방적이라고 지각한 청소년은 분노조절이 높게 나타났고, 부모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각한 청소년은 분노표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지현(2010)의 연구에서는 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자녀의 분노 표현방식이 변화함을 보여주었다. 부모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폭력 및 절도형 문제행동에, 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권위 반항형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정연, 2005).

## 2)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내면화된 수치심

수치심은 가족, 또래, 학교, 사회·문화적 환경에서의 경험 유형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게 형성된다(Kaufman, 1992). 그 중 초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수치심이 형성되면 이후의 대인관계에 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모든 발달 단계를 걸쳐 고통스러운 자기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Nathanson, 1992).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부모로부터의 양육과 관심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통제와 과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고(Cook, 1991), 부모로부터 비난을 받았거나 부모가 다른 형제들을 편애해 자신은 덜 사랑받았다고 지각하는 경우 수치심을 느끼기 쉬우며, 대인관계 문제나 다른 정신 병리에 있어서도 취약하다고 했다(Gilbert, Allan, Gross, 1996). 또 양육자가 유아에게 처벌과 비판, 버려짐을 느끼게 하면, 유아는 자신을 수치스러워하며 자신 속에 숨으며 타인과의 접촉을 두려워하는 수치적 자아를 내면화하게 된다고 하였다(Bradshaw, 1988). 그 이후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나 방임, 지속적인 비난 등이 포함된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수치심 촉진시킨다고 하였다(Lewis, 1992). Boszormeny-Nagy 등(1973)은 부모가 자녀에게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을 내면화시킨 자녀는 자신의 온전한 욕구나

의도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Loader(1998) 역시 부모들이 자녀에게 비현실적인 목표를 만들어 놓고 기대하고,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반복적으로 수행에 대해 실패하게 된다면 부모는 결과에 대해 실망스런 감정이나 행동을 감추지 못하게 되고, 이 반응에 대해 자녀는 자신이 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Tangney & Dearing(2004)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은 과거 아동기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훈육 대신 아동을 혐오하거나, 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애정을 철회하는 태도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 어머니의 비난, 공격, 무시하는 태도의 양육 역시 높은 수치심과 관련이 있었고, 특히 무시하는 태도는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양육 태도보다 수치심과 더욱 높은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Claesson & Shoberg, 2002).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수치심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고, 과잉간섭, 과잉기대, 방임, 비일관성,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수치심을 증가시키는 영향력이 있었다(김혜민, 2008).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높을수록(이용택, 2010),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학대 등을 경험할수록 수치심이 성격특성으로 자리 잡게 된다고 하였다(최은영, 안현의, 2011).

그러나 선행연구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의사소통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과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3) 분노표현방식과 내면화된 수치심

수치심은 타인의 관점으로 조정된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할 수 없는 견해이

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타인의 판단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어 하며 자아존중감을 위협하는 자기 이미지를 강박적으로 떠올리게 되어 자신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 개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된다(Trumbull, 2003). 그래서 수치심이 생성되었으나 수치심에 직면해서 그것을 견딜 수 없을 때 자기(the self)는 경험된 수치심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 분노를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게 된다. 개인은 수치심은 느끼는 순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방어하고자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숨거나 사라지고 싶어 하고, 자신의 생각, 기대, 느낌 등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자기를 타인들로부터 보호하고, 수치심의 고통을 느끼게 한 타인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분노하게 된다(Bradshaw, 1988).

수치심과 분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일관되게 수치심은 다른 정서보다 분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류설영, 1998). 최근까지의 외국의 경험적 연구에서는 수치심이 우울, 불안, 분노, 강박 성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 비난, 고립감, 자기 훼손, 완벽주의, 정체성 혼란, 반추사고와 같은 많은 부정적인 인지적·행동적 경험과 연결된다고 설명하였고(Wheeler, 2000; Lutwak et al., 1998; Tangney et al., 1995), 많은 정서적·병리적 현상들의 기저에 수치심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Harder, 1995; Cook, 1994).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자기애와 사회불안(한혜림, 2004), 병리적 의존(신주연, 2003), 자기불일치(서현령, 2002), 분노, 우울, 불안(류설영, 1998), 성인애착과 우울(박주용, 2004), 사회적 지지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전철은, 2002), 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이인숙 외, 2005)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들 연구에서 수치심이 직접 혹은 매개로 작용하여 사회불안, 병리적 의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분노, 불안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지현, 2007).

Lewis(1971)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치심 유발로 인해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자신에게 적대감과 비난의 감정을 가지게 되며 거부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에게 향했던 적대감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되어 타인에게 적대감을 품게 되는 방식의 방어적 기제로 사용하게 된다고 했다(류설영, 1998에서 재인용). Miller(1988)도 지속되는 분노로 인한 수치심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연결되면서 타인에 대한 분노를 유발하게 된다고 보았다. Yontef(1991)는 사람들은 때로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 공격이나 합리화, 분노 및 자기 정당화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했으며, Tangney(1992, 1999)은 수치심은 분노나 적대감, 외현화 문제, 언어적 공격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수치심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분노감정에 반응하고, 부적응적인 분노표현 방식 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황지연, 2013; 유수린, 2012; 김현주, 2009; 장진아, 2006).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분노표현방식,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3곳의 중학교를 선정하여 1~3학년 418명을 연구참가자로 모집하였다. 조사 분석은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한부모 가정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총 367부 분석하였다. 자세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67)

구분		인원수	백분율
성별	남	139	37.9
	여	228	62.1
학년	중 1	70	19.1
	중 2	108	29.4
	중 3	189	51.5

#### 2. 조사방법

연구를 위한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학교장과 담임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 후 동의를 얻었다. 그 후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의 동의를 받고,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한 학생들에게 실시하였다.

### 3. 측정도구

#### 1)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Barnes와 Olson(1982)의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김윤희(1989)가 번안한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자녀 간 의사소통 20문항과 모-자녀간 의사소통 20문항으로 개방형 의사소통(10문항)과 폐쇄형 의사소통(10문항)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이며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개방형 의사소통은 ‘나의 소신을 부모님께 거리낌 없이 아버지(어머니)께 의논할 수 있다.’, ‘아버지(어머니)는 늘 내 말을 귀담아 들어 주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폐쇄형 의사소통은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어머니)께서는 차라리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귀찮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alpha$ 를 살펴보면, Olson등이 한 연구에서는 개방형 .87, 폐쇄형 .78, 총 .88이었고, 김윤희(1989)의 연구에서는 개방형 .82, 폐쇄형 .72, 총 .86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표 2>와 같다.

표 2.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신뢰도

	문항	아버지	어머니
개방형	1,3,5,7,9,11,13,15,17,19	.91	.92
폐쇄형	2,4,6,8,10,12,14,16,18,20	.84	.84
	전체	.93	.94

## 2) 분노표현방식 척도

청소년의 분노표현 측정을 위한 Spielberger(1988)가 제작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의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IX-K, 전검구, 한덕웅, 이장호, 1997)를 박진숙(2007)이 청소년용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래 검사는 5개의 하위영역(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억제, 분노표현, 분노조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분노조절(anger-control)’, ‘분노표출(anger-out)’, ‘분노억제(anger-in)’ 하위영역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영역은 4점 척도이며, 문항수는 각 8문항씩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분노조절은 ‘나는 화가 나면 화를 잘 참는다’, ‘나는 화가 나면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대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노표출은 ‘나는 화가 나면 화난 감정을 표현한다’, ‘나는 화가 나면 사람들과 말다툼을 한다’ 등의 문항으로, 분노억제는 ‘나는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화가 나면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분통이 더 나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유진(2013)의 연구에서 분노표현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분노억제 .81, 분노표출 .80, 분노조절 .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표 3>과 같다.

표 3. 분노표현방식 척도 신뢰도

구분	문항	Cronbach's $\alpha$
분노표출	2, 7, 9, 12, 14, 19, 22, 23	.80
분노억제	3, 5, 6, 10, 13, 16, 17, 21	.76
분노조절	1, 4, 8, 11, 15, 18, 20, 24	.79
	전체	.72

### 3)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Cook(1989)이 제작한 수치심 척도 (Internalized Shame Scale: ISS)를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과 문항이 같은 방향으로 주어졌을 경우 한 방향으로 대답하려는 경향을 제어하기 위해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를 포함시킨 자존감 6문항을 포함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결과의 분석을 위해서는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만을 사용하며, 각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척도는 5점 척도이며, 부적절감, 공허, 자기처벌, 실수 불안의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부적절감 영역은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타인 역시 자신을 무시하고 알볼 것이라고 생각하며 소외감을 느끼는 특성을 포함하여, '나는 스스로 꽤 괜찮다고 느낀 적이 없다'와 같은 문항으로 되어 있다. 공허 영역은 '내 안에는 내가 채울 수 없는 고통스러운 괴리가 있다'와 같이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느낌과 자신의 신체와 감정에 대한 통제감을 잃은 것처럼 느끼는 특성을 나타낸다. 또 자기처벌 영역은 완벽을 추구하지만 부족함을 느끼고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 반추하고 타인에게 과도하게 노출되었다고 느낄 때 자신의 존재감을 없애고 싶어 하거나 실수 시에 자신을 공격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늘 부족함을 볼 뿐이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수 불안 영역은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결점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특성을 포함하여 '실수를 하면 나는 움츠러 드는 것 같다'와 같은 문항으로 되어 있다.

이인숙, 최해림(200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alpha$  .93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95이다.

표 4.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신뢰도

구분	문항	Cronbach's $\alpha$
부적절감	1,2,3,5,7,8,10,11,12,24	.92
공허	23,26,27,29,30	.90
자기치별	15,17,20,22,25	.81
실수불안	6,13,16,19	.79
전체		.95

\* 4, 9, 14, 18, 21, 28(6문항)은 채점하지 않음.

####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alpha$ 를 이용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각 변인별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단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분노표현방법에 대한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Bootstrapping 검증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전체 응답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 결과는 <표 5>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생순위는 막내(42.5%)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첫째(33.8%), 외동(13.4%), 중간(10.4%)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부모와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가 71.1%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만 있는 경우는 15.3%, 부모와 조부모 또는 친척과 함께 사는 경우는 13.6%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은 부모 모두 40대(부: 68.4% / 모: 82.6%)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 50대(부: 24.0% / 모: 7.9%), 30대(부: 1.1% / 모: 3.3%) 순으로 나타났고 부의 경우에는 60대도 0.5%도 차지하였다.

대화시간을 살펴보면, 1주일을 기준으로 하여 청소년이 지각한 대화횟수 살펴보면, 부모 모두 4-7회(부: 54.2% / 모: 63.5%)로 가장 많았으며, 부의 경우는 0-3회(25.6%), 8회 이상(15.0%)의 순서로, 모의 경우는 8회 이상(21.5%), 0-3회(10.1%)의 순서로 나타났다. 1회 대화시간을 살펴보면, 부의 경우는 1-10분(43.6%), 11-30분(31.1%), 31-1시간(12.5%), 1-2시간(3.3%), 2시간 이상(2.2%)의 순서로 나타났다. 모의 경우는 11-30분(33.2%), 1-10분(28.9%), 31-1시간(19.9%), 1-2시간(8.2%), 2시간 이상(3.3%)의 순서로 부와의 대화시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 5.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N=367)

출생순위	첫째	124명(33.8%)	
	중간	38명(10.4%)	
	막내	156명(42.5%)	
	외동	49명(13.4%)	
가족형태	부모	56명(15.3%)	
	부모+형제,자매	261명(71.1%)	
	부모+기타(조부모, 친척)	50명(13.6%)	
		부	모
부모연령	30대	4명(1.1%)	12명(3.3%)
	40대	251명(68.4%)	303명(82.6%)
	50대	88명(24.0%)	29명(7.9%)
	60대	2명(0.5%)	-
대화횟수 (1주일)	0-3회	94명(25.6%)	37명(10.1%)
	4-7회	199명(54.2%)	233명(63.5%)
	8회 이상	55명(15.0%)	79명(21.5%)
대화시간	1-10분	160명(43.6%)	106명(28.9%)
	11-30분	114명(31.1%)	122명(33.2%)
	31분-1시간	46명(12.5%)	73명(19.9%)
	1-2시간	12명(3.3%)	30명(8.2%)
	2시간 이상	8명(2.2%)	12명(3.3%)

## 2.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의 왜도가  $\pm 2$ , 첨도가  $\pm 7$ 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측

정치들이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표 6.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367)

	<i>M</i>	<i>SD</i>	왜도	첨도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2.84	.61	-.60	.40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1.86	.51	.38	-.07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3.13	.58	-.28	-.31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1.76	.50	.24	-.84
내면화된 수치심	2.31	.72	.57	.08
분노조절	2.53	.53	.20	-.14
분노표출	3.04	.52	-.58	.16
분노억제	2.94	.55	-.48	.11

### 3.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7>과 같고, 모든 변인들 간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먼저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에서는 분노조절( $r=.14, p<.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내면화된 수치심( $r=-.47, p<.001$ ), 분노표출( $r=-.22, p<.001$ ), 분노억제( $r=-.22, p<.001$ )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에서도 분노조절( $r=.18, p<.001$ )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내면화된 수치심( $r=-.41, p<.01$ ), 분노표출( $r=-.22, p<.001$ ), 분노억제( $r=-.22, p<.001$ )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분노조절과 정적상관이,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와는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내면화된 수치심과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3은 모두 지지되었다.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은 내면화된 수치심( $r=.46, p<.001$ ), 분노표출( $r=.34, p<.001$ ), 분노억제( $r=.30, p<.001$ )과는 정적상관을, 분노조절( $r=-.17, p<.01$ )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에서도 내면화된 수치심( $r=.54, p<.01$ ), 분노표출( $r=.20, p<.001$ ), 분노억제( $r=.26, p<.001$ )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분노조절( $r=-.17, p<.01$ )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은 분노조절과 부적상관이,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와는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2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은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4도 모두 지지되었다.

내면화된 수치심에서는 분노조절( $r=-.01, p=.79$ )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분노표출( $r=.25, p<.001$ ), 분노억제( $r=.49, p<.001$ )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조절과 부적상관이,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와는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의 일부만 지지되었다.

표 7.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							
2.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72***	-						
3.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59***	-.46***	-					
4.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47***	.59***	-.76***	-				
5. 내면화된 수치심	-.34***	.46***	-.37***	.52***	-			
6. 분노조절	.14**	-.17**	.18***	-.17**	-.01	-		
7. 분노표출	-.22***	.34***	-.14**	.20***	.25***	-.40***	-	
8. 분노억제	-.22***	.30***	-.15**	.26***	.49***	.05	.35***	-

\*\*\*  $p<.001$ , \*\*  $p<.01$ , \*  $p<.05$

#### 4.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분노표현방식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 1) 연구모형 검증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분노표현방식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제안에 따라 회귀 방정식으로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

첫째, 예측변인은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한다. 둘째, 매개변인은 결과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한다. 셋째, 위의 두 경로가 통제되었을 때, 이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예측변인은 결과변인에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 위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완전매개모형이 성립되며, 첫째와 둘째 조건이 성립되었으나 여전히 예측변인이 결과변인에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부분매개모형이 성립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예측변인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변인으로, 분노조절방식을 결과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1)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분노표현방식,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 ①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분노조절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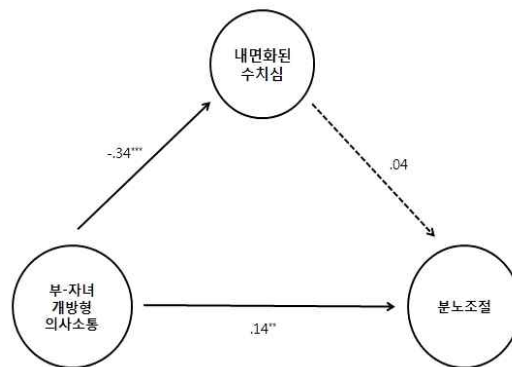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분노조절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분노조절을 준거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분노조절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beta=.14, p<.01$ ). 다음으로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을 예측변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준거변인으로 투입한 두 번째 회귀분석 단계에서도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내면화된 수치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의 조건도 충족시켰다( $\beta=-.34, p<.001$ ). 그러나 분노조절을 준거변인으로,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예측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였을 때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04, p=.48$ ). 그러므로 매개효과를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표 8.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분노조절,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단계	준거변수	예측변수	B	$\beta$	t	$R^2$ (Adj $R^2$ )	F
1	분노조절	부-개방	.12	.14	2.71**	.02(.02)	7.32**
2	수치심	부-개방	-.43	-.34	-6.91***	.12(.11)	47.68***
3	분노조절	부-개방 수치심	.13 .03	.15 .04	2.78** .69	.02(.02)	3.89*



<그림 2>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분노조절,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

②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분노표출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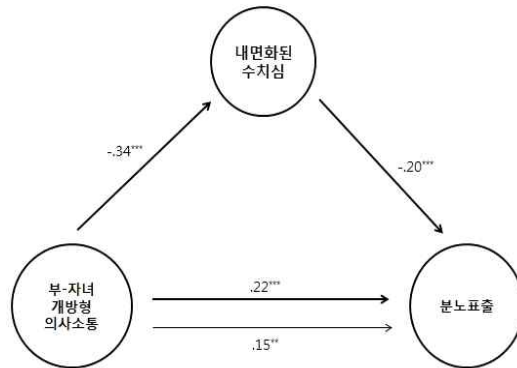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분노표출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분노표출을 준거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분노표출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beta=.22, p<.001$ ). 다음으로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을 예측변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준거변인으로 투입한 두 번째 회귀분석 단계에서도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내면화된 수치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의 조건도 충족시켰다( $\beta=-.34, p<.001$ ).

세 번째로 분노표출을 준거변인으로,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예측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였을 때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표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20, p<.001$ ), 예측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beta=.15, p<.01$ ). 그러므로 내면화된 수치심은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분노표출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분노표출,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단계	준거변수	예측변수	<i>B</i>	$\beta$	<i>t</i>	$R^2$ ( <i>Adj R^2</i> )	<i>F</i>
1	분노표출	부-개방	.19	.22	4.22***	.05(.04)	17.82***
2	수치심	부-개방	-.43	-.34	-6.91***	.12(.11)	47.68***
3	분노표출	부-개방 수치심	.13 -.14	.15 -.20	2.77** -3.72***	.08(.08)	16.15***



<그림 3>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분노표출,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

③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분노억제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분노억제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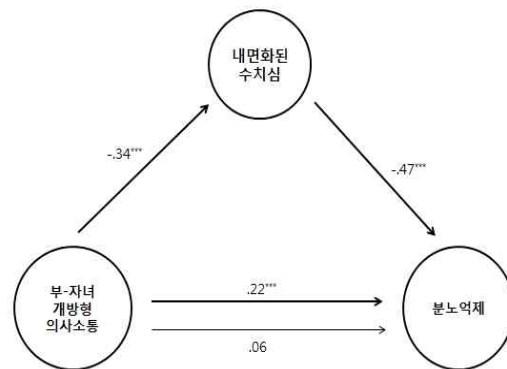
첫째, 분노억제를 준거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분노억제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beta=.22, p<.001$ ). 다음으로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을 예측변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준거변인으로 투입한 두 번째 회귀분석 단계에서도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내면화된 수치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의 조건도 충족시켰다( $\beta=-.34, p<.001$ ).

세 번째로 분노억제를 준거변인으로,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예측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였을 때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47, p<.001$ ),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이 분노억제를 더 이상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beta=.06, p=.19$ ). 그러므로 내면화된 수치심은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분노억제,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단계	준거변수	예측변수	<i>B</i>	$\beta$	<i>t</i>	<i>R</i> <sup>2</sup> ( <i>Adj R</i> <sup>2</sup> )	<i>F</i>
1	분노억제	부-개방	.20	.22	4.40***	.05(.05)	19.32***
2	수치심	부-개방	-.43	-.34	-6.91***	.12(.11)	47.68***
3	분노억제	부-개방 수치심	.06 -.34	.06 -.47	1.32 -9.77***	.25(.24)	59.89***



<그림 4>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분노억제,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

(2)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분노표현방식,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①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과 분노조절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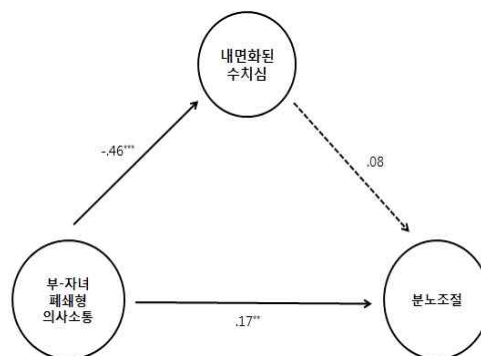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과 분노조절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분노조절을 준거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은

분노조절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beta=.17, p<.01$ ). 다음으로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을 예측변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준거변인으로 투입한 두 번째 회귀분석 단계에서도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은 내면화된 수치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의 조건도 충족시켰다( $\beta=-.46, p<.001$ ). 그러나 분노조절을 준거변인으로,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예측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였을 때,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08, p=.16$ ). 그러므로 매개효과를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표 11.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분노조절,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단계	준거변수	예측변수	<i>B</i>	$\beta$	<i>t</i>	$R^2$ ( <i>Adj R^2</i> )	<i>F</i>
1	분노조절	부-폐쇄	.18	.17	3.32**	.03(.03)	11.03**
2	수치심	부-폐쇄	-.70	-.46	-9.93***	.21(.21)	98.67***
3	분노조절	부-폐쇄 수치심	.22 .06	.21 .08	3.61*** 1.43	.04(.03)	6.55**



<그림 5>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분노조절,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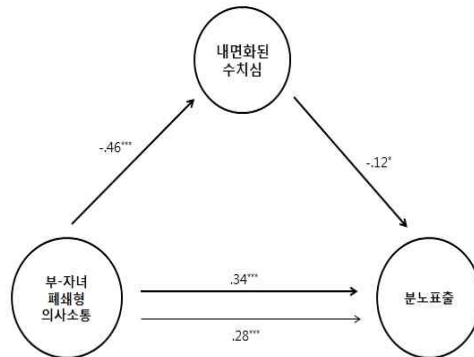
②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과 분노표출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과 분노표출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분노표출을 준거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은 분노표출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beta=.34, p<.001$ ). 다음으로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을 예측변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준거변인으로 투입한 두 번째 회귀 분석 단계에서도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은 내면화된 수치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의 조건도 충족시켰다( $\beta=-.46, p<.001$ ). 세 번째로 분노표출을 준거변인으로,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과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예측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였을 때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표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2, p<.05$ ), 예측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beta=.28, p<.001$ ). 그러므로 내면화된 수치심은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과 분노표출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2.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분노표출,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단계	준거변수	예측변수	<i>B</i>	$\beta$	<i>t</i>	$R^2$ ( <i>Adj R^2</i> )	<i>F</i>
1	분노표출	부-폐쇄	.35	.34	6.86***	.11(.11)	47.12***
2	수치심	부-폐쇄	-.70	-.46	-9.93***	.21(.21)	98.67***
3	분노표출	부-폐쇄 수치심	.29 -.08	.28 -.12	5.13*** -2.14*	.13(.12)	26.09***



<그림 6>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분노표출,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

③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과 분노억제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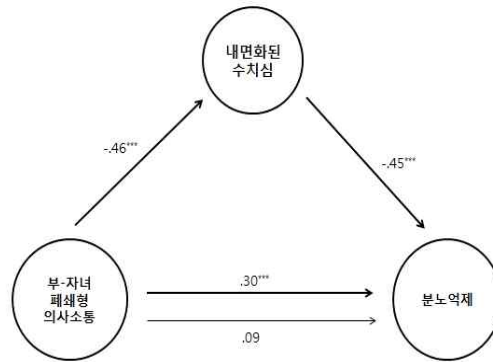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과 분노억제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분노억제를 준거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은 분노억제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beta=.30, p<.001$ ). 다음으로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을 예측변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준거변인으로 투입한 두 번째 회귀분석 단계에서도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은 내면화된 수치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의 조건도 충족시켰다( $\beta=-.46, p<.001$ ). 세 번째로 분노억제를 준거변인으로,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과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예측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였을 때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45, p<.001$ ),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이 분노억제를 더 이상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9, p=.08$ ). 그러므로 내면화된 수치심은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3.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분노억제,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단계	준거변수	예측변수	$B$	$\beta$	$t$	$R^2$ ( $Adj R^2$ )	$F$
1	분노억제	부-폐쇄	.32	.30	5.99***	.09(.09)	35.84***
2	수치심	부-폐쇄	-.70	-.46	-9.93***	.21(.21)	98.67***
3	분노억제	부-폐쇄 수치심	.09 -.32	.09 -.45	1.77 -8.84***	.25(.25)	60.81***



<그림 7>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분노억제,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

(3)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분노표현방식,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①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분노조절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분노조절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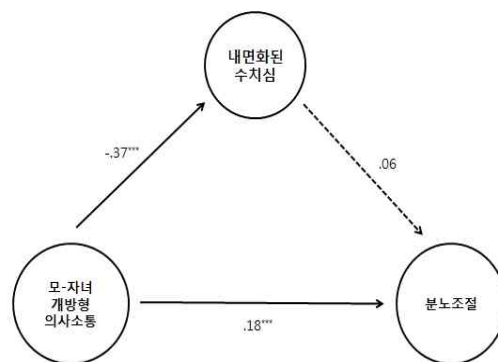
첫째, 분노조절을 준거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은 분노조절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beta=.18, p<.001$ ). 다음으로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을 예측변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준거변인으로 투입한 두 번째 회귀 분석 단계에서도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내면화된 수치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의 조건도 충족시켰다( $\beta=-.37, p<.001$ ).

그러나 세 번째로 분노조절을 준거변인으로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예측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였을 때,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06, p=.25$ ). 그러므로 매개효과를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표 14.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분노조절,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단계	준거변수	예측변수	B	$\beta$	t	$R^2$ (Adj $R^2$ )	F
1	분노조절	모-개방	.17	.18	3.56***	.03(.03)	12.69***
2	수치심	모-개방	-.50	-.37	-7.71***	.14(.14)	59.50***
3	분노조절	모-개방 수치심	.19 .04	.21 .06	3.74*** 1.15	.04(.03)	7.01**



<그림 8>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분노조절,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

②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분노표출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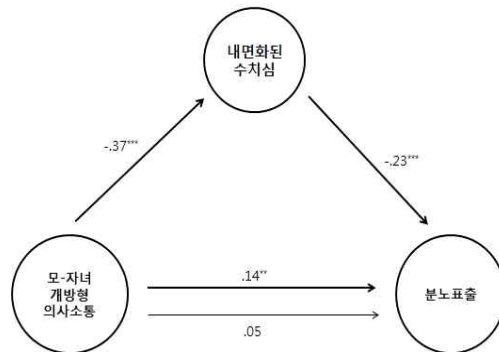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분노표출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분노표출을 준거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분노표출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beta=.14, p<.01$ ). 다음으로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을 예측변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준거변인으로 투입한 두 번째 회귀 분석 단계에서도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내면화된 수치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의 조건도 충족시켰다( $\beta=-.37, p<.001$ ).

세 번째로 분노표출을 준거변인으로,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예측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였을 때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표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23, p<.001$ ),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이 분노표출을 더 이상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5, p=.36$ ). 그러므로 내면화된 수치심은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분노표출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5.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분노표출,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단계	준거변수	예측변수	<i>B</i>	$\beta$	<i>t</i>	$R^2$ ( <i>Adj R^2</i> )	<i>F</i>
1	분노표출	모-개방	.12	.14	2.63**	.02(.02)	6.89**
2	수치심	모-개방	-.50	-.37	-7.71***	.14(.14)	59.50***
3	분노표출	모-개방 수치심	.05 -.16	.05 -.23	.91 -4.22***	.06(.06)	12.49***



<그림 9>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분노표출,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

③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분노억제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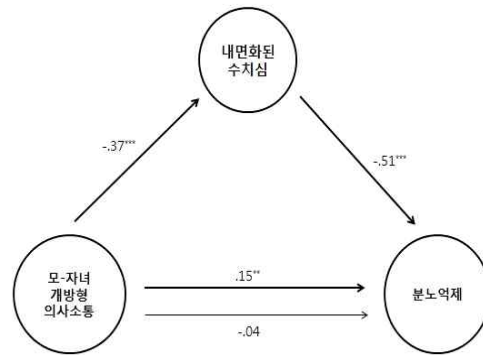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분노억제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분노억제를 준거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분노억제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beta=.15, p<.01$ ). 다음으로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을 예측변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준거변인으로 투입한 두 번째 회귀분석 단계에서도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내면화된 수치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의 조건도 충족시켰다( $\beta=-.37, p<.001$ ). 세 번째로 분노억제를 준거변인으로,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예측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였을 때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51, p<.001$ ),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이 분노억제를 더 이상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4, p=.37$ ). 그러므로 내면화된 수치심은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분노억제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6.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분노억제,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단계	준거변수	예측변수	<i>B</i>	$\beta$	<i>t</i>	<i>R</i> <sup>2</sup> ( <i>Adj R</i> <sup>2</sup> )	<i>F</i>
1	분노억제	모-개방	.14	.15	2.84**	.02(.02)	8.05**
2	수치심	모-개방	-.50	-.37	-7.71***	.14(.14)	59.50***
3	분노억제	모-개방 수치심	-.04 -.36	-.04 -.51	-.90 -10.40***	.25(.24)	59.27***



<그림 10>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 분노억제,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

(4)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분노표현방식,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①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과 분노조절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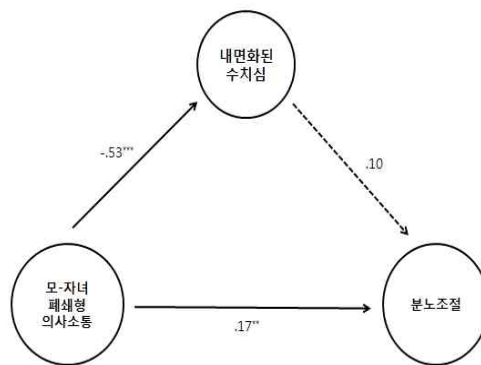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과 분노조절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분노조절을 준거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은

분노조절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beta=.17, p<.01$ ). 다음으로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을 예측변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준거변인으로 투입한 두 번째 회귀분석 단계에서도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은 내면화된 수치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의 조건도 충족시켰다( $\beta=-.53, p<.001$ ). 그러나 분노조절을 준거변인으로,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과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예측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였을 때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10, p=.09$ ). 그러므로 매개효과를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표 17.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분노조절,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단계	준거변수	예측변수	B	$\beta$	t	$R^2$ (Adj $R^2$ )	F
1	분노조절	모-폐쇄	.18	.17	3.24**	.03(.03)	10.50**
2	수치심	모-폐쇄	-.81	-.53	-11.80***	.28(.27)	139.12***
3	분노조절	모-폐쇄 수치심	.23 .07	.22 .10	3.65*** 1.70	.04(.03)	6.71**



<그림 11>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분노조절,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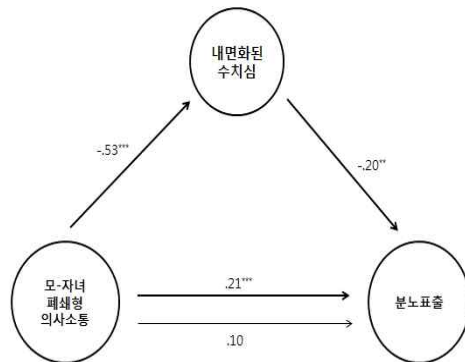
②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과 분노표출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과 분노표출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분노표출을 준거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은 분노표출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beta=.21, p<.001$ ). 다음으로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을 예측변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준거변인으로 투입한 두 번째 회귀분석 단계에서도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은 내면화된 수치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의 조건도 충족시켰다( $\beta=-.53, p<.001$ ). 세 번째로 분노표출을 준거변인으로,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과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예측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였을 때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표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0, p<.01$ ),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이 분노표출을 더 이상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0, p=.09$ ). 그러므로 내면화된 수치심은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과 분노표출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8.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분노표출,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단계	준거변수	예측변수	<i>B</i>	$\beta$	<i>t</i>	$R^2$ ( <i>Adj R^2</i> )	<i>F</i>
1	분노표출	모-폐쇄	.21	.21	4.00***	.04(.04)	16.04***
2	수치심	모-폐쇄	-.81	-.53	-11.80***	.28(.27)	139.12***
3	분노표출	모-폐쇄 수치심	.11 -.13	.10 -.20	1.73 -3.29**	.07(.07)	13.64***



<그림 12>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분노표출,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

③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과 분노억제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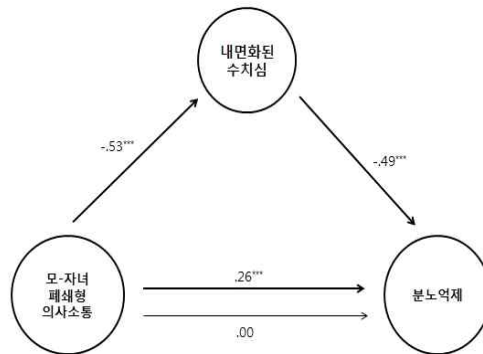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과 분노억제 사이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분노억제를 준거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은 분노억제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beta=.26, p<.001$ ). 다음으로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을 예측변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준거변인으로 투입한 두 번째 회귀분석 단계에서도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은 내면화된 수치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의 조건도 충족시켰다( $\beta=-.53, p<.001$ ). 세 번째로 분노억제를 준거변인으로,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과 매개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예측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였을 때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9, p<.001$ ),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이 분노억제를 더 이상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6, p=.95$ ). 그러므로 내면화된 수치심은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9.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분노억제,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단계	준거변수	예측변수	<i>B</i>	$\beta$	<i>t</i>	$R^2$ ( <i>Adj R^2</i> )	<i>F</i>
1	분노억제	모-폐쇄	.29	.26	5.18***	.07(.07)	26.84***
2	수치심	모-폐쇄	-.81	-.53	-11.80***	.28(.27)	139.12***
3	분노억제	모-폐쇄 수치심	.00 -.35	.00 -.49	.06(.95) -9.19***	.24(.24)	58.74***



<그림 13>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분노억제,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

## 2) 매개효과 검증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매개효과는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지만 Bootstrapping 절차를 적용하면 매개효과가 정상분포를 이루어야 한다는 가정 없이 검증이 가능하다(최윤희, 2014; 서영석, 2010).

본 연구에서는 Bootstrapping 표본을 5,000개를 지정하고 매개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였다. 추정치에 대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매개효과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분노표현방식과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간접효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분노표출  $.06(p<.001)$ 과 분노억제  $.14(p<.001)$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분노표현방식(분노조절, 분노표출, 분노억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 2-1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서만 효과가 있었으므로 일부만 지지되었다.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은 분노억제  $.16(p<.001)$  간의 관계에서만 내면화된 수치심의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분노표출  $.06(p<.001)$ 의 경우 내면화된 수치심과의 관계에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분노표현방식(분노조절, 분노표출, 분노억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 2-2에서 분노억제에서만 결과가 유의하였으므로 일부만 지지되었다.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분노표출  $.08(p<.001)$ 과 분노억제  $.18(p<.001)$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지각한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분노표현방식(분노조절, 분노표출, 분노억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 2-3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서만 효과가 있었으므로 일부만 지지되었다.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 역시 분노표출  $.11(p<.001)$ 과 분노억제  $.28(p<.001)$ 와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지각한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분노표현방식(분노조절, 분노표출, 분노억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

는 가설 2-4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서만 효과가 있었으므로 일부만 지지되었다.

표 20. 매개효과 검증결과

경로	간접효과	95%신뢰구간	
		lower	upper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수치심→분노표출	.06***	.02	.10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수치심→분노억제	.14***	.09	.20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수치심→분노표출	.06***	-.00	.12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수치심→분노억제	.23***	.16	.31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수치심→분노표출	.08***	.04	.13
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수치심→분노억제	.18***	.13	.25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수치심→분노표출	.11***	.04	.19
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수치심→분노억제	.28***	.20	.38

## V. 논의

###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의의

본 연구는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분노표현방식과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적응적인 분노표현 방식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중학교 1~3학년 남·녀 3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개방형, 폐쇄형), 분노표현방식(분노조절, 분노표출, 분노억제),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분노조절과 정적 상관이, 부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에서 분노조절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분노조절의 경우 부모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청소년일수록 분노조절을 잘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양윤일(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그들 간의 사실, 생각, 의견, 감정의 표현을 통해 공통의 이해를 이루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이기 때문에(권미경, 1993), 이러한 의사소통이 효율적일 때 청소년들의 심리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김인향, 1997).

반면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와 부적 상관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은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청소년일수록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 표출한다고

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와 효율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할 때에 청소년들은 욕구불만 및 불만족을 가지게 되고 이는 청소년의 부적절한 분노 표현 방식인 분노억압이나 분노표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한 하정희, 박희숙(2007)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 오지현(2010)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비난형, 초이성형, 회유형과 같이 역기능적일 경우,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표현방법이 높게 나타났으며, 추미례와 김정희(2008)에서도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할 경우 부정적인 분노표현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도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의 경우는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부적 상관을, 부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과 정적 상관으로 나타냈다. 이는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내면화된 수치심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지어 논의해 볼 수 있겠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부모로부터의 양육과 관심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통제와 과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고(Cook, 1991), 부모로부터 비난을 받았거나 부모가 다른 형제들을 편애해 자신은 덜 사랑받았다고 지각하는 경우 수치심을 느끼기 쉬우며, 대인관계 문제나 다른 정신 병리에 있어서도 취약하다는 것(Gilbert, Allan, Gross, 1996)과 맥을 같이 할 수 있겠다. 또한 부모 양육태도가 자녀의 수치심에 영향을 미쳤다(최창석, 조한익, 2001; 이용택, 2010)는 국내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방식의 관계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분노조절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Averill(1982)이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분노를 높게 경험한다고 밝혀낸 연구와 국내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같은 부적응적 방식 간에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집단의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서 수치심이 분노와 가장 높은 정

적상관을 보인 것과 일치된 결과이다. 그러나 최임정, 심혜숙(2010)의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방식의 관계에서 분노억 제, 분노표출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분노조절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인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분노표현방식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분노조절과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 치심의 매개효과 결과는 분노조절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상관이 성립되지 않았 기 때문에 매개효과를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자녀 개방형 의사소통은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내면화 된 수치심은 부분매개효과를, 분노억제와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완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자녀 관계에서 개방형 의사소통을 사용한다고 지각한 청소년들은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낮고, 분노표출과 분 노억제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에게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직 접적으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 이 낮게 때문에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적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은 분노억제와의 관계에서만 내면 화된 수치심이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자녀 관계에서 폐쇄형 의사소통을 사용한다고 지각한 청소년들은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 고, 분노억제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에게 부의 폐쇄형 의사소통 은 직접적으로 분노억제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기 때문에 분노억제도 높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청소년이 지각한 모-자녀 의사소통은 개방형, 폐쇄형 모두 분노표출, 분노억

제와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모두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녀 관계에서 개방형 의사소통을 사용한다고 지각한 청소년들은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낮고,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폐쇄형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각한 청소년들은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고,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모의 의사소통은 직접적으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에 의해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정리하자면, 청소년들은 부모의 의사소통 개방적일 때, 자기상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자기상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낮아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적게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청소년들은 부모의 의사소통 폐쇄적일 때, 자기상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되어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라 분노표현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부적응적 분노표현에 있어서 그 원인들이 부모와의 관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내면화되어 있는 수치심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남녀 중학생 36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남자(37.9%), 여자(62.1)의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Barnes와 Olson(1985)의 연구결과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의사소통을 지각하

는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Kopper(1993)의 분노표현 연구에서도 뚜렷한 남녀의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민하영(1991)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의 의사소통을 더 개방적이라고 지각했다고 보고하였고, 김근화(2003)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의사소통에서 남녀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주 외 11인(2006)의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긍정적인 분노표현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역기능적인 분노표현방식에서는 남학생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여학생은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심에 대한 성차를 밝혀온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수치심 경향성이 더욱 강하다는 결론(Ferguson, Eyre & Ashbaker, 2000; Reimer, 1997; Tangney, 1994)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을 고르게 표집하여 변인들 간의 관련성과 차이를 살펴보아야겠다.

둘째, 본 연구의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조사는 자녀의 입장에서 제한된 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는 연구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와 부모 모두의 관점에서 좀 더 폭넓게 적용하여 지각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연구가 자기보고형식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문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면접연구나 질적 연구를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라 분노표현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분노표현은 부모뿐만 아니라 청소년 개인과도 관련이 있으며, 적절한 분노표현을 위해 부모와 청소년 모두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부모에게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 청소년의 심리적인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자료가 될 것이며, 청소년들에게는 분노표현 방식과 관련된 치료적 개입을 통하여 적응적인 분노표현 방식을 익히고, 내부적 요인인 수치심을 다룰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아라 (200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아탄력성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정연 (2005).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 및 정서상태와 청소년 문제행동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미 (2011). **대학생의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과 자아탄력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귀랑 (2005). **아동의 분노표현과 또래폭력 경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 (2012). **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유형 및 또래관계 질과 분노표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희 (2011).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 안정성 및 자아존중감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원 (2000).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관련변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차정은 (2010). **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양육행동 지각,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자기조절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24(3), 563-582.
- 김양희(2000). **가족관계학**. 서울: 수학사.
- 김은정 (2001). **아동의 분노표현방식과 부모의 양육태도 및 심리적 가정환경**.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영 (2004).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 (2009).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분노표현의 관계-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민 (2008).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수치심 및 사회불안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윤옥, 전미경 (2006).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8(1), 1-15.
- 류설영 (1998). **대인 관계 성향에서의 죄책감, 수치심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 연구-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승민 (201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공감능력 및 친구간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영숙 (2008).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개념,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4(4), 405-414.
- 민규영, 송현주(2010). 공격성향, 분노표현,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고찰. **심리치료**, 10(1), 35-53.
- 박금남 (200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 차이 연구: 일반청소년과 잠재적 비행청소년 가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아 (201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양육태도가 분노 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주연 (2010). 학대받은 아동의 귀인성향이 우울 및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적대적 의도귀인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용 (2005). **성인 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현 (2007). **청소년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향 (2004).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중학생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윤미 (2006). **부와 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친구간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수균 (2007). 자존감과 자기에 수준에 따른 분노사고, 신념, 분노표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19-734.
- 서지영, 최정윤 (2000). 품행장애 청소년들의 특성분노와 분노반응양식(포스터 발표초록). **한국 심리학회 연차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246-247.
- 서현령 (2002). 자기불일치와 수치심, 죄책감의 관계-자기불일치 중요도와 자기기준 선호도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선명숙 (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안녕감, 자기 효능감,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나래, (2009).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주연 (2003).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 :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설하 (2005). **수줍음과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분노표현방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윤성 (201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남녀 청소년의 목표지향성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자은 (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완벽주의 및 정서표현성향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지현 (2010). **청소년의 특성분노,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및 분노표현방식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7(4), 53-68
- 오윤선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 분노 및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0(3), 91-104.
- 오지현(2010), **청소년의 특성분노,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및 분**

- 노표현방식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7(4), 53-68.
- 유수린 (2012).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과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수미 (2004).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규미 (1999). **청소년의 분노와 분노처리과정에서의 공격행동에 관한 체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선주 (2010). **청소년의 애착수준과 애착유형에 따른 열등감과 분노표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 최혜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척도의 타당화 연구-애착, 과민성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영경 (2008).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일치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요나 (200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철호 (2010). **분노반추, 자기통제 및 용서가 분노경험과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진아 (2006). **여성의 대상관계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분노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2008). **가족심리학**. 박영상
- 장혜순, 강태완 (200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8(2), 104-130.
- 장혜림 (2014). **남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경구 (2011). **화, 참을 수 없다면 똑똑하게**, 서울: 21세기북스.
- 전현숙, 손정락 (2011). 역기능적 분노표현 및 비합리적 신념과 마음챙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2), 377-396.
- 전철은 (2002). **심리적 피학대 여성의 수치심, 죄책감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윤성 (200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수용-거부 양육태도에 따른 대학생의 분노표현방식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효진 (2009). **수치심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영, 안현의 (2011). 여대생의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 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3), 285-302.
- 최 현 (2009). **초등학생의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과 정서지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혜림 (2004).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지연 (2014). **내면화된 수치심이 전위 공격성이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이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연덕, 이진숙 (2010). 부모의 방임행동,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이 아동의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8(10), 77-88.
- 홍혜란 (2010).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간 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중학생 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derson, S. F., & Lawler, K. A. (1995). The anger recall interview and cardiovascular reactivity in women: An examination of context and

- experienc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39, 335-343.
- Barnes, H.,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ilodeau, L. (1992). *The Anger Workbook*. Hazelden.
- Boszormeny-Nagy, L., & Spark, G. M. (1973). *Invisible Loyalties. Reciproc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 Bradshaw, J. (1988). *Healing the Shame That Bind You*. Florida, Health Communications Incorporation.
- Buss, Arnold H. & Perry, Mark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459
- Bedford, O., & Hwang, K. K. (2003). Guilt and shame in chinese culture: A cross-cultural framework from the perspective morality and identity.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33(2), 127-144.
- Cook, D. R. (1987).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4, 197-215.
- Deffenbacher, J. L., & Hazaleus, S. L. (1985). Cognitive, emotional, and physiological components of test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9(2), 169-180.
- DiGiuseppe, R. (1999). Reflections on the Treatment of Ang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3), 365-379.
- Ellenson, A. (1983). *Human rel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Eric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Erickson, E. H. (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reud, S. (1953).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In J. Strachey

- (Ed. and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7, pp.125-243).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05).
- Gilbert, P., Allan, S., & Gross, K. (1996). Parental representations, shame, interpersonal problems, and vulnerability to psychopathology.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3(1), 23-34.
- Kaufman, G. (1989). *The psychology of shame; Theory and treatment of shame-based syndrome*.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 Kaufman, G. (1992). *Shame The power of caring*. Rochester, Vermont: Schenkman Books.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zarus, R. S., Kanner, A. D., & Folkman, S. (1980). Emotions: a cognitive-phenomenological analysis, *Emotion Theory research*, 1, 189-214.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Lewis, H. B. (1992). *Shame: the exposed self*. New York: The Fress Press.
- Loader, P. (1998). Such a shame-A consideration of shame and shaming mechanism in families. *Child Abuse Review*, 7(1), 44-57.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ional Universities Press.
- Lewis, M., Alessandrini, S. M., & Sullivan, M. W. (1990). Violation of expectancy, loss of control, and anger expressions in young children.

- Developmental Psychology*, 26, 745-751.
- Lindsay-Hartz, J. (1984). Contrasting experiences of shame and guil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7, 689-704.
- Mills, R. S. L. (2004). Taking stock of the developmental literature on shame. *Developmental Review*, 25, 26-63.
- Nathanson, D. L. (1992). *Shame and pride: affect, sex, and the birth of the self*. New York: Norton & Company.
- Nathanson, D. L. (1992). *Shame & Pride*. New York: Guilford Press.
- Nathanson, D. L. (1994). *Shame and pride: Affect sex and th birth of the self*. WW Norton & Company.
- Novaco, R. W. (1976). The Function and Regulation of Arousal of Ang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3, 1124-1128
- Piers, G., & Singer, M. B. (1953). *Shame & guilt*.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Publisher.
- Reimer, M. (1997). *Feeling from the self: Assessing shame and it implications in adolescent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Philadelphia, PA.
- Siegman, A. W. (1994). Cardiovascular consequences of expressing and repressing anger. In A. W. Siegman & T. W. Smith (Eds.), *Anger, Hostility, and the heart* (pp. 173-19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misse (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pp. 89-108). NewYork: Springer-Verlag.

- Tangney, J. P. (1995). *Shame and guil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J. P. Tangney, J. P., & Fisher, K. W. (Eds.) (1995). *Self-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New York, NY: Guilford Press.
- Trumbull, D. (2003). Shame: An Acute stress response to interpersonal traumatization. *Psychiatry*, 66(1), 53-64.
- Yontef, G. M. (1991). *Shame: Awareness Dialogue & Process*. New York: The gestalt Journal Press.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unication of Parent-child and Anger expression in Adolescents -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

Jung, Ji Youn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how the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nfluences the adolescents' anger expression and the mediator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A survey on the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nfluences the adolescents' anger expression and the mediator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was done on 367 middle school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correlational analyses showed that the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of the opened type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nger-control, while it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nger-out, anger-in, internalized shame. The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of the closed type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nger-out, anger-in, internalized shame, while it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nger-control. Also, the internalized shame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nger-out, anger-in, but it had not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nger-control. At the only closed communication type, parents give meaningful influences on the anger expression only at the closed relationship

Secondly, a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to know the mediator effect of the internalized shame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ger expression methods and the communication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 of the following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 : Adolescent, The Communication of Parent-Child, Anger Expression, Internalized Shame

## 부 록

부록 I.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부록 II. 분노표현방식 척도

부록 III.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 다음은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를 해주십시오. 번호가 없는 문항의 경우에는 ( )안에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는 현재 몇 학년입니까?  
① 중학교 1학년 ② 중학교 2학년 ③ 중학교 3학년
3. 귀하의 출생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① 첫째 ② 중간 ③ 막내 ④ 외동 ⑤ 기타
4. 부모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부 : ( )세, ② 모 : ( )세
5.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할아버지 ④ 할머니 ⑤ 오빠(형)  
⑥ 언니(누나) ⑦ 동생(남, 여) ⑧ 친척 ⑨ 혼자
6. 부모님과 대화는 일주일에 몇 회 정도 나누며, 1회당 평균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아버지 ( )회/주, 평균 ( )분  
② 어머니 ( )회/주, 평균 ( )분

<척도 1> 부모-자녀 의사소통

★ 다음은 부모님과 여러분의 최근 1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을 잘 읽고 해당되는 곳에 ○ 하세요.

- 아버지

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소신을 아버지께 거리낌 없이 의논할 수 있다.				
2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끔 믿기가 어렵다.				
3	아버지는 늘 내 말을 귀담아 들어 주신다.				
4	내가 원하는 바를 아버지께 부탁드리면 겁이 난다.				
5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나의 감정이 어떤지 잘 아신다.				
6	아버지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니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라신다.				
7	나는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 만족스럽다.				
8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께서는 차라리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다.				
9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아버지께 모두 말씀드릴 수 있다.				

10	아버지께 말씀드리려면 조심스럽고 어렵다.				
11	마음 놓고 아버지께 어리광을 부린다.				
12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느니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편하다.				
13	내 질문에 아버지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다.				
14	나에게는 아버지와 의논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15	아버지는 내 의견을 이해해 주시려고 애쓴다.				
16	나는 아버지의 잔소리 때문에 귀찮다.				
17	나는 아버지와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의논을 잘한다.				
18	아버지는 나로 인해 화가 나시면 창피를 주신다.				
19	나의 느낌을 아버지께 솔직하게 잘 털어 놓는다.				
20	무슨 일에 대해 내 진심을 아버지께 그대로 말씀드릴 수 없다.				

- 어머니

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소신을 어머니께 거리낌 없이 의논할 수 있다.				
2	어머니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끔 믿기가 어렵다.				
3	어머니는 늘 내 말을 귀담아 들어 주신다.				
4	내가 원하는 바를 어머니께 부탁드리면 겁이 난다.				
5	내가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나의 감정이 어떤지 잘 아신다.				
6	어머니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니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라신다.				
7	나는 어머니와 대화를 하면 만족스럽다.				
8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께서는 차라리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다.				
9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어머니께 모두 말씀드릴 수 있다.				
10	어머니께 말씀드리려면 조심스럽고 어렵다.				
11	마음 놓고 어머니께 어리광을 부린다.				

12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느니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편하다.				
13	내 질문에 어머니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다.				
14	나에게는 어머니와 의논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15	어머니는 내 의견을 이해해 주시려고 애쓴다.				
16	나는 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귀찮다.				
17	나는 어머니와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의논을 잘한다.				
18	어머니는 나로 인해 화가 나시면 창피를 주신다.				
19	나의 느낌을 어머니께 솔직하게 잘 털어 놓는다.				
20	무슨 일에 대해 내 진심을 어머니께 그대로 말씀드릴 수 없다.				

<척도 2> 분노표현방식

★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 감정 반응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잘 나타내는 것에 '○'를 해주십시오.

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화가 나면 화를 잘 참는다.				
2	나는 화가 나면 화난 감정을 표현한다.				
3	나는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는다.				
4	나는 화가 나면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대한다.				
5	나는 화가 나면 똥해지거나 토라진다.				
6	나는 화가 나면 사람들을 피한다.				
7	나는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른다.				
8	나는 화가 나면 계속 냉정함을 지킨다.				
9	나는 화가 나면 문을 팡 닫아버리는 식의 행동을 한다.				
10	나는 화가 나면 상대의 시선을 피한다.				
11	나는 화가 나면 나의 행동을 자제한다.				

12	나는 화가 나면 사람들과 말다툼을 한다.				
13	나는 화가 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나, 안으로는 앙심을 품는 경향이 있다.				
14	나는 화가 나면 목소리를 높인다.				
15	나는 화가 나더라도 침착하게 자제할 수 있다.				
16	나는 화가 나면 속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17	나는 화가 나면 나 자신이 인정하는 것보다 화가 더 나있다.				
18	나는 화가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진정이 빨리 된다.				
19	나는 화가 나면 욕을 한다.				
20	나는 화가 나면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21	나는 화가 나면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분통이 더 나 있다.				
22	나는 화가 나면 자제심을 잃고 화를 낸다.				
23	나는 화가 나면 화난 표정을 짓는다.				
24	나는 화가 나면 화난 감정을 자제한다.				

<척도 3> 내면화된 수치심

★ 다음은 자신에 대해 경험하고 있거나 느끼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평소에 느끼는 것들에 가까운 곳에 ‘○’를 해주십시오.

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스스로 괜찮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					
2	나는 어쩐지 내쳐진 느낌이다.					
3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낀다.					
4	나는 대체로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5	나는 스스로를 비웃고 자신을 알본다.					
6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볼까 불안하다.					
7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결코 이상(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8	나는 내 자신이 매우 작고 보잘 것 없이 느껴진다.					
9	나에게는 자랑스러워할 점이 많은 것 같다.					
10	나는 부적절함을 강하게 느끼고 자신에 대한 회의로 가득 차 있다.					

11	나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인간으로서 뭔가 결함이 있는 것 같다.					
12	내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그들만큼 중요하지 않다.					
13	다른 사람 앞에서 내 결점이 드러나는 것이 나는 아주 무섭다.					
14	나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15	나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늘 부족함을 볼 뿐이다.					
16	다른 사람이 내 결점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17	나는 실수를 하면 몽둥이로 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싶다.					
18	대체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19	실수를 하면 나는 움츠러드는 것 같다.					
20	나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결국 압도되고 만다.					
21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22	때로 내가 수천조각으로 부서질 것 같이 느껴진다.					
23	나는 내 신체와 감정에 대한 통제감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24	때로 나는 콩알처럼 아주 작게 느껴진다.					
25	때로 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같을 때 땅이 열려 나를 삼켜버렸으면 싶다.					

26	내 안에는 내가 채울 수 없는 고통스러운 괴리가 있다.					
27	나는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음을 느낀다.					
28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29	나의 외로움을 텅 빈 공허감과 같다.					
30	나는 뭔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같 은 느낌이다.					